주기도와 십자가(VIII) - 시험과 악

(마6:9~13)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내용상으로는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시험과 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어서 그 구절이 기도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관심의 대상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이 처음 태어난 것처럼 상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몰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인격에 우리가 안기면서 스며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또 뜻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들이 기도 속에서 진행이 되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구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한꺼번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자리까지,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까지 진행되고 있어야 될 모든 삶에 시험에 듦을 통하여 악이 찾아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이…

이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게 다 뜬 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려 버려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냐 마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냥 비현실적인 것으로 들리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처럼 들려버리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심과는 무관하게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험에 든 상태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시험에 드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가며 확장되어가며 진행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나라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세 살, 네 살 때 아버지하고 외출을 하게 되면 그저 과제가 아버지 쫓아가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가면 거의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이라는 게 우리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져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려나가시고 꼼꼼하게 사소한 모든 일에까지 손대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나라의 진행과정을 보조를 맞추어 따라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게 이처럼 하나님나라의 진행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13년이 걸리는 거예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서 서른 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 13년의 과정을 원망으로 지새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복수심으로 이를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일생동안에 단 한번이라도 일어나서는 안될 만큼 끔찍하고 치명적인 일이 두 번씩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떨어져서도 요셉은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치 처음부터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 상황을 수용하고 성실하게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돌아가려면 천 날을 가야 될 것을 30일 만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30일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여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만 헐떡거리면서 쫓아가지를 못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시험에 들게 된 가장 큰 예, 대표적인 예가 사십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싸인이 됩니다. 엄청난 싸인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백성을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십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며 밤에는 따뜻하게 지켜주고 낮에는 광야에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고 말아요. 계속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 신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 불평하게 될 때 그들이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인도하신다는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십년 동안 시험에 빠지게 되는 주된 이유가 음식, 고기를 못 먹게 된 것과 부추 마늘 같은 것을 못 먹는다는 거였고, 물 때문이었고, 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의 부분과 연관되어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걸려 넘어져서 계속해서 시험에 빠져드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느냐 인도하지 않느냐? 살아계셔서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고기를 못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목마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하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에서 시험에 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지금 천국이 있어서 그 천국 보좌에 앉아계신 그분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의 구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혹시 예배 중에나 경배와 찬양, 찬송할 때쯤에는 하나님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실제로 느껴졌다가, 삶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냥 내가 뛰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하늘의 아버지가 뭘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라는 생각으로 접어버립니다.

시험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하늘 아버지가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

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믿지도 느끼지도 실감하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 속에 들어가고 있는 음식이 오고가고 이런 물류의 흐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지갑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이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겁니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욥에게서 일어난 일처럼 마음이 처음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해야 되지마는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한 게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사업이 넘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고 "목사님,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우선 내가 당장 아무개 지점장을 찾아가 대축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노래에나 나오는 얘기지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자식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일이 안되고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다는 것 노래나 하는 얘기죠, 그게 진짜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돈이 많아야 기쁘고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가야 기쁜 거지요."

다 시험에 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험에 들까요?
간단해요. 시험에 빠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선악과의 효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유전자 속에 숨겨져 있는 선악과의 약효가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은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이렇게 목이 마르도록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부추와 마늘을 먹지 못하게 하실 리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고기라고 하는 것은 구경도 못하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 백성도 아니고 노예로 일하고 살 때조차도 고기를 먹었는데 어떻게 바로 왕보다 월등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기를 못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생각이 있는 겁니다.
호 불호,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로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좋고, 나쁘고 판단을 하고 있는 한 반드시 우리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가 하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냐 틀리냐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맞냐 틀리냐 라는 거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반드시…
내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내 기준을 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한, 이 세상의 환경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고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번 나오면 반드시 이루어 냅니다. 형통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시작이 되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주어져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이 상황이 주어진 것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목표점까지 가는데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처럼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하는 걸 보면 '저 인생은 망했다'고 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세우고 기근을 통하여 허덕이는 모든 만백성을 구하시는 당신의 역사를 형통하도록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바람에 도중에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도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작정하신 계획의 시작부터 마지막은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작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상황이고, 마지막은 가나안 복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다 시험에 들고 말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은 것처럼 그만 다 고꾸라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그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왜 침묵

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라도 내려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렇게 박해를 가하는 권세자들에게 천벌을 내리셔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몸이 너희의 마음을 묶고 있는 상황을 너희가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빨리 몸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아버지께로 하늘로 피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세요.

엔도 슈샤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의 현실 속에서 같이 신음하고 고통 하셨다"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스테반의 순교현장을 볼 때 그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계시고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스테반의 마음을 하늘로 낚아버리십니다. 스테반의 얼굴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천사같이 빛이 납니다.
침묵하지 않으세요. 언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이 내게 더 나으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침묵하신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말했다, 왜 몸에 묶여서 그 몸의 상황에 쩔쩔 매면서 평생을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네 몸에 대해서 죽어라, 몸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붙잡고 우리 마음이 육체와 육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삶의 현실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시험에 든 겁니다.
몸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몸의 현실이 안 좋게 전개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자 유명한 신학자인데 39세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그분이 왜 순교를 당하셨는가 하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했다가 실패하면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2년 동안 옥고를 치르신 다음에 거기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과연 이것을 순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차치하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신앙인이 바르게 신앙할 때에 할 수 있는 행동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네로도 그 못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네로 치하에서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몇 백 년 동안 로마 치하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왜 그들이 순교를 당할까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늘의 아버지라고 당신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서 자녀들이 사자 밥이 되게 하시고, 불에 타 죽게 하시고, 온갖 방법으로 박해를 당하도록 내버려두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250년 동안을 카타콤에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면 하늘의 아버지이시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 마음이 하늘을 획득하게 될 때, 아버지를 처음 태어나서 관계하는 것처럼 관계함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음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질 때 이 몸이 처하게 되는 현실에서 박해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은 몸을 떠나도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니, 십 년 뒤에 죽으나 이십 년 뒤에 죽으나 삼십 년 뒤에 죽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만약에 천 년 살아야 될 목숨이 50 년 살고 박해 받아서 죽었다면 좀 억울하다고 할 것을, 80년 살면 죽을 것을 50살에 죽는다고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영생할 나라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본회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세상에서는 -이 성숙한 세상이라는 것은 18세기 계몽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스스로 삶의 짐을 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세상 속에서는- 신앙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시콜콜히 우리의 일상성 속에서 일상적인 일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든지 이래저래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 성숙한 세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짐을 져야 된다, 그러므로 미친 버스기사가 시장통을 마구 운전하면서 사람을 치어 죽이니까 버스에 기어 올라가서 운전기사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본회퍼를 존경하시는 많은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시험에 든 겁니다.
대단한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성숙한 세계가 있어서 그 성숙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 짐을 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나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이 왜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무슨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험에 든 겁니다.

히틀러가 나타나서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 마음에서 욥의 원리를 따라 마음이 선점하고 있는 나라 자체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라보다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다음에 나라로 나가서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이 몸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신 대로 이끌림을 받아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히틀러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주실 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네로를 암살하라든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빌라도를 암살한다든지 로마 황제를 암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치하에서 당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겁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돈이 많이 벌려야 좋다고 생각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돈이 벌려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죽어라고 안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번은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까지 참다 마지막에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고…
그걸 끝까지 안 놓으니까…
돈이 벌려야 좋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돈 안 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 너 돈 먹고 떨어져라’ 돈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돼야 좋다, 저렇게 돼야 좋다’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의 반대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술꾼이라서요?
아니요,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좋은 당신을 맛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들 마음속에 넣어준 가치관에서 죽는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들 마음속에 넣어준 신념체계에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좋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거지요.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고 땅이 하늘에서 낮음같이 낮은 거예요. 우리 생각은 땅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처럼 높은 천양지차(天壤之差)의 생각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가 갖고 이 세상에서 배운 바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험에 빠져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여러분, 우황청심환 준비해야 될 겁니다. 왜? 크고 비밀한 일들이 빵빵 터질 거예요.

근데 크고 비밀한 일들이 터질 때까지 -크고 비밀하다는 것은 내게 알려지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버는 게 좋지요, 건강한 게 좋지요,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는 게 좋지요.’ 다 알고 있어요. 비밀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면 좋겠다 싶은 일 중에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게 아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
다 알고 있는 일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것은 <식모누나의 원리>를 통해서 도망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사로잡아서 너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 이 세상일로부터 도망 나오라"는 겁니다.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하고 도망오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가 쫓아올 때 "누나, 누나!"하며 도망 오는 것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한 일이 없다는 것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라 이겁니다.
다 우리가 예측해요, "좋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잘되는 건 이런 거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 하신다는데 이 일이 안 일어나지? 에~이! 이거 아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십자가에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죽으면 하늘이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족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잊어버리잖아요? 하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게 다 꿈같아요, 꿈.
막연하게 느껴져요. 참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에 붙어있으면 하늘이 현실이 되고, 이 세상은 이차적인 게 돼버리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늘이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게 돼버려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사도바울의 말씀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몸에 짊어지고 다니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 장애인이 되지 않으면-휠체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떠날 수 없는 장애인으로 살지 않는 한 하늘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꿈 얘기요, 뜬 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려서 본회퍼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삶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해 나가자"라고 얘기하게끔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든 거지요.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의 악이? 바로 그거예요. 시험에 든 상태를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그냥 고정시켜버립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교회 가면 예배하고 세상에 나오면 내가 움직여요.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자식관계 남편관계 아내관계 직장관계 장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생활과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늘로부터 폐쇄적으로 세계내적인 원칙, 이 세상내적인 원칙에 의해서만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악이라 이겁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하늘을 향하여 오픈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악과 반대되는 거예요.

아담이 악에 빠지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에덴으로부터 격리되는 겁니다. 악에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장에 나갔을 때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하늘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악이에요.
직장 내의 생존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요게 악이라는 겁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식을 두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략을 따라 움직여가는 것,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폐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루어져야 될 뜻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은 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가난이 죄랍니다, 가난이.

여러분, 참 이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난이라는 게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고, 병이라는 게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사도바울 몸에 가시를 두었느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의 힘이 십자가를 벗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은 뒤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삼킴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항상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려고 병이 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과 병을 …

그런데 이제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뜻’이라 하면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건강해야 되는 거고, 이게 다 악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가지 않는 모든 삶, 폐쇄적으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가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묻지도 않고 무조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세상이 추구하는 부자, 세상이 추구하는 건강이 그냥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결정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추구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고대 사본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습관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속에서는 항상 송영이 있어요. 송영이 있어야 기도가 완결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생각에 맞추어서 송영을 집어넣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내용은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총망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문이 마쳐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면 시험에 들어요. 놓치면…
그리고 그 시험에 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악에 빠져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살고, 밖에서는 악하게 사는 기독교인이 거의 다일 거예요.
왜?
하나님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전부 세상의 논리와 원리를 따라가니까…

내일은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 9절부터 13절까지를 어떻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기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던 주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어서 주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그 결과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